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2. 14.(화) 14:00 < 2.15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14.(화)
담당 부서 <총괄>	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	책임자	과 장 조웅환(044-203-4310)
		담당자	사무관 구상옥(044-203-4309)

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'23~'27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마련

① **민군기술협력에 '27년까지 1.5조 원 이상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대폭 확대**
② **방산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, 연 3천 명 이상 기반산업 인력 양성**
③ **중소수출기업에 1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, 방산선도무역관 확대(20→30개소)**
④ **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,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**

□ **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과 **이종섭 국방부 장관**은 2월 14일(화)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**2023년 첫 「방위산업발전협의회(제10회)」**를 공동 주재하였다.

○ 이번 협의회는 **역대 최고 실적**을 달성한 '22년도 **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**로 만들고, **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**하기 위하여, **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하여 개최**하였으며, **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**하였다.

<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요>

- 개요 :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협의회로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
- 일시/장소 '23. 2. 14.(화) 13:30~15:00 / 국방부 대회의실(서울 용산)
- 참석자 : 약 40명
  - (공동의장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국방부 장관
  - (기존위원) 방사청장(부위원장), 산업부/국방부/기재부/과기부/외교부 실장급 공무원
  - (확대참석) 중기부, 금융위원회, 각 군, 수출입은행, 국방과학연구소,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,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, 방위산업진흥회 등

□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**"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"**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**「제3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안)**('23~'27년)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.

*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

○ **4대 방산 선도국 도약**을 위해 민·군 협력으로 **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**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**우주까지 확장**하는 동시에, **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**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.

□ 제3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①민·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, ②생태계 경쟁력 제고, ③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, ④강력한 민·군 협력체계 가동 등 **4대 추진전략**을 바탕으로 **10개 과제**를 담고 있다.

① **'27년까지 1.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** 등 도전적 **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**하여 민·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**정부연구개발의** 0.84% 수준에서 **1%로 늘린다.**

○ 우주,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**16대 중점기술분야**를 중심으로 **'High-Risk, High-Return(고위험 고수익)'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**하며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**임무**(Mission) **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**하고, 이를 위해 **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**를 위한 **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**하고 있다.

* 16대 중점기술분야는 전문가협의체,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, 국방전략 기술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

○ **민·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**를 **단계적으로 확대**('22년 2,510억원 → '27년 4,000억원)하여 **'27년까지 1.5조원 이상을 투입**하고, **무인기 대응** 등 안보·경제적으로 중요한 **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**를 위한 **민·군협력을 강화**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**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**하고,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**우주실증을 추진**하는 동시에, **민·군겸용 기술개발'로 우주부품 원천기술**을 확보하는 등 **민·군협력을 통해 우주 산업화 기반을 마련**한다는 계획을 담았다.

* 9개 민·군겸용 우주기술개발과제 추진('22~'26, 1,850억원 투자)

②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, 연 3,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·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.

○ 부처 합동으로 **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**을 마련해, **'27년까지** 탄소복합재 등 **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**하고,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**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**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**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접목**(Spin-On)과 **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**(Spin-off) **투트랙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**하기 위해 제도 개선, 실증인프라 확대, 군 소요와 연구개발간 매칭 강화,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가동한다.

○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**기반산업**(기계, 로봇, 항공, 소부장 등) 분야에서 **연 500억원을 투입해 3,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**하고, 방산 분야를 포함한 **중소중견기업 재직자** 대상 **AI융합 및 SW 교육**을 추진한다.

③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, 금융지원 확충,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.

○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, 인프라 등 다양한 **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***을 추진하고, 절충교역 연계 수출활용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**절충교역을 유망품목·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**로 적극 활용한다.

* △사우디, UAE 등과 에너지·첨단제조산업 협력 확대, △폴란드, 영국 등과 부품·기자재 기술협력 확대, △한미 기업 간 항공분야 공동연구개발 등 한미 협력 강화 등

○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, 애로 해소, 자금·인력 등을 지원하는 **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**하고, 연 1천억원 규모의 **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** 등 수출금융을 확충하며, KOTRA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**현지거점 지원**을 강화한다.

* '23.상반기내 정부-무역보험공사-시중은행 간 업무협정(MOU) 체결 추진

○ 아울러, **기술교류회 확대 운영***, **국방-민간연구소 간 기술협력 활성화** 등을 통해 민·군 연구협력을 확대하고,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**전략적 국제협력**과 **국제표준 호환성과 연계한 기술개발**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.

* (근거) 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, (확대 운영) 분야별 소위원회 확대(10개 → 16개), 수시 개최로 연구협력 활성화

④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,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·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.

○ 민·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**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**하고,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**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***하는 등 강력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.

* (기존) 위원장(국장급), 위원(과장급) → (변경) 위원장(차관급), 위원(국장급)

○ 아울러,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**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(KOTRA)의 기능을 강화**하여 **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**을 대폭 강화하고, 기술협력, 판로확보, 금융지원, 애로해소 등 **전 주기에 걸친 기업 밀착 서비스**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「**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**」 심의를 거쳐 제3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**최종 확정할 예정**이다.

□ **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"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,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**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**하고 있으며,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%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**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**하겠다."고 밝혔다.

○ 이를 위해 "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**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**하고, **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**하여 **소재·부품,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**하며, 방위산업 수출이

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**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**하고, **지원 인프라를 확충**하겠다."고 강조하였다.

□ 양 장관은 앞으로도 「**방위산업발전협의회**」를 통해 방산수출을 확대하고,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**협력안건을 발굴**하고, 대한민국이 **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**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.

【붙 임】 1. 제3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안) 기본전략
2. 제3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안) 핵심 정책과제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	책임자	과 장 조웅환 (044-203-4310)
		담당자	팀 장 이은희 (044-203-4312) 사무관 구상옥 (044-203-4309)
담당 부서	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	책임자	과 장 천영훈 (02-748-5420)
		담당자	육중령(진) 김민성 (02-748-54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제3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안) 기본전략

방위산업 4대 선도국 진입
-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수출 확대의 선순환 강화 -

기 본 방 향

◇ ①민·군 기술혁신, ②생태계 경쟁력 강화, ③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등 3대축을 중심으로 역량 집중

◇ 방위산업의 지능화·첨단화를 위한 대규모 R&D 프로젝트 추진

◇ 민·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가동

추진과제

민군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R&D투자 대규모 확대	① 방위산업 민·군기술협력 특화 대형 R&D 추진 ② 민·군 상용화 기술혁신 규모 확대 ③ 민·군협력으로 우주 산업화 기반 마련
민·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	① 생태계 밸류체인 경쟁력 제고 ② 민·군 기술자산 공유 및 사업화 촉진 ③ 핵심인력 양성 추진
민·군기술협력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	① 他산업과의 연계 협력 강화 ② 해외 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③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

강력한 민·군 협력체계 가동

붙임2 제3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안) 핵심 정책과제

1 민·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R&D 투자 대규모 확대

- **16대 중점분야 중심 '고위험 고수익' 연구개발**을 위해 **5년간 2조원 규모 예타** 추진
- **민·군 기술협력에 '27년까지 1.5조원 이상 투자**
- **무인기 대응** 등 **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**를 위한 민·군 협력 강화
- **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, 민·군 위성활용, 우주부품 자립화**로 **우주 산업화**

2 민·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

- **'27년까지 2,000억원을 투입해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추진**
- 방산 소재부품 기업을 위한 **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신규 지정** 추진
- **실증 인프라 확대** 등 **민·군 기술 상호 이전**(Spin-on & Spin-off) 및 **사업화 촉진**
- **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,000명 이상 인력양성** 및 **S/W 교육 강화**

3 민·군 기술협력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

- **방위산업을 에너지, 플랜트,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** 전개
- **중소수출기업 대상 연 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** 및 **방산선도무역관 확대**
- **기술교류회 활성화** 등 **민·군 연구협력** 및 **해외기업과의 국제협력** 강화

4 강력한 민·군 협력체계 가동

- **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, 민군기술협의회 위상 격상** 등 **범정부 협력 강화**
- **해외진출 등 기업밀착 지원을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**